

Japan Weekly Digest

2012. 10. 06 ~ 2012. 10. 12

① 주간 경제 초점

-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중단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- 중국경제의 감속으로 주춤하는 일본경제
- 희토류의 중국의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자석 개발

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

대한 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1 주간경제초점 :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중단

□ 한일간 통화교환 한도 130억달러로 축소

- 10월말로 끝나는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협정이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, 금융시장 혼란시 한일간 통화교환 한도가 현행 700억달러에서 130억달러로 축소되게 됨.
-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, 한일 양국은 겉으로는 부정하고 있으나, 정치적인 대립으로 경제협력관계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.
- 장래 금융위기에 대비하여, 아시아 역내 금융안전망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한·일간 연대에 큰 과제를 남겨놓았다고 일본경제신문은 보도하고 있음.

□ 순수하게 경제적인 요소에 기초한 결정

- 한·일 정부는 통화스와프 한도의 축소 이유에 대하여 거의 같은 내용으로 설명, 독도문제와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강조.
-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, 조지마 고리키(城島光力) 일본 재무상은 이날 오전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조치의 중단과 관련, 「한국으로부터 연장 요청이 없었다」고 하면서, 「순수하게 금융·경제적인 요소에 기초한 판단」이었음을 밝힘.
- 한국 기획재정부도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결정한 조치라고 설명.

□ 한일 문제에 대한, 일본식의 연착륙 해법 모색

- 통화스와프 한도 확대는 작년 10월 한·일 양 정상회담에서 합의.
- 유럽재정위기로 달러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유럽계금융기관들이 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, 한국의 은행이나 기업들이 달러자금 융통이 악화되어 금융위기가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은 보도.
- 기한은 금년 10월말까지 1년간으로 상황 등을 보아 연장여부를 판단기로 했던 것임.
- 그러나 금년 8월 독도문제를 계기로 일본내에서 「국민감정상 간과할 수 없다」는(아주미 준 전재무상) 등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어짐.
- 이에 일본 재무성은 총리관저와 협의하여, 한일 문제에 대한 일본 나름대로의 연착륙 해법을 모색한 것으로 일본경제신문은 전하고 있음. 즉 한국으로부터 연장요청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10월말로 중단방침을 결정

□ 협정 유지를 바라는 견해도 있어

- 한국은행도 경상수지나 외환준비 등 대외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어 국내외 금융시장도 안정되고 있음을 감안했다는 것임.
- 통화스와프 확대 중단조치가 발표된 9일 서울 외환·증권시장에서는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, 종합주가지수 모두 전일과 비교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등 단기적인 영향은 거의 보여지지 않음.
- 그러나 세계경제의 감속시 한국으로부터 자금도피가 우려되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음.
- 외환보유고에 대한 단기외채 비율은 6월말 시점에서 45%로 여전히 높은 수준. 외환보유고중 긴급시 현금화되기 쉬운 미국 국채 등의 비율은 적다는 것임.
- 한국의 연구기관으로부터도 필요에 따라 스와프 확대를 부활시키는 것이 좋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, 속내로는 현행 스와프 한도의 유지를 바라고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는 것임.
-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일본은 「치앙마이 이니셔티브(CMI)」라고 불리는 아시아 독자적인 외환유통망 정비를 주도, 최근에는 중국이나 한국, ASEAN과 보조를 맞추면서 자금한도를 늘려왔음.
- 한·일 통화협정을 둘러싼 움직임은 영토나 역사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임. 잠재적인 대립구조를 안고 있는 아시아에서의 금융안전망 정비의 어려운 측면도 내비치고 있다고 일본경제신문은 논평하고 있음.

□ 통화스와프 확대 중단의 영향과 일본측의 대응방식

- 이번 통화 스와프 확대 중단은 한국, 일본 모두에게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는 하나, 단기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.
- 한국경제가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시와 비교하여 경제상황이나 외환사정이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, 여전히 비교적 대규모의 외화채무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금융·통화리스크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것은 아님.
- 이러한 점에서 통화스와프 확대 중단으로, 그동안 적립된 외환보유고 상당액이 500억달러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투기꾼들의 표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다소 증가할 수 있음.
- 통화스와프 확대 중단으로 인해 일본도 원화에 대한 엔고, 대일불신에 따른 한국 관련기업들의 대중접근 강화 등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으나, 이 모두 단기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움.
- 일본이 작년에 우리나라와 통화스와프 규모를 늘리기로 했던 주된 배경으로

는, 일본의 엔고 행진으로 인해 일본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데 있다는 지적도 있음.

- 이에 일본이 가장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, 오히려 한국이 엔화를 가져다 쓸 가능성을 높인 것임.
 - 이러한 점에서는 통화 스와프 확대 중단으로, 엔화와 원화간 상대적인 비율이 일본에게 더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.
- 따라서 일본정부로서는 이러한 가능성, 특히 통화스와프 확대중단이 금융불안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, 이를 정치에 이용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.
- 한국정부로서도 절박한 위기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까지 무릅쓰면서 확대 연장을 신청할 필요가 있을지 고민했을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, 일본측의 이번 대응이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는 좋게는 보여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□ 중국경제의 감속으로 주춤하는 일본경제

- 2/4분기까지 4분기 연속 플러스성장을 계속하고 있던 일본경제가 해외경제의 감속으로 급제동이 걸림. 최대 수출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8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속
- 특히 산업기계 등 중국의 내수관련 수출이 부진. 1~9월 기간중 공작기계의 대중수주액이 전년동기대비 4.6% 감소.
 - 중국경제는 대유럽수출의 둔화라는 제 1단계를 지나, 내수감속의 제 2단계로 진입, 2/4분기 실질경제성장율이 3년만에 8%를 하회, 감속을 계속하고 있음.
 -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버블이나 국영기업의 생산과잉 등의 부정적인 변수를 안고 있어, 추가적인 재정조치에 의한 대규모 경기대책은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음
- 중국경제가 불투명상태에 있는 가운데, 일본경제를 견인해온 개인소비가 둔화. 에코카에 대한 보조금이 9월 하순으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판매는 감소로 반전될 것으로 우려되어, 4/4분기 GDP가 0.8%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관측
-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일본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음. 그 대표적인 산업이 제지산업임. 엔고로 인해 중국의 종이제품이 일본에 대량 유입되고 있기 때문임.
 -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 중국제품에 의해 시장점유율이 잠식, 그렇다고 가격인하로 대항하게 되면 채산성이 악화되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음.
- 한국도 중국경제 감속의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이나, 일본은 중·일관계 악화로 중국리스크가 여타 아시아 국가들보다 증폭되기 쉬움.
 - 토요타자동차 등 일본자동차메이커들이 조업시간 단축 등 본격적인 감산에 들어감. 중국인 관광객수도 급감. 통관검사의 강화 등 중국의 대일보복조치도 확대되고 있음.
- 중국경제의 향방과 관련하여, 최근 일본은행 총재는 농촌에서 잉여노동력이 감소, 고령화 진전 등으로 중국의 잠재성장율이 저하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언급. 그리고 가뜩이나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반일 운동이 겹쳐다는 것임.
- 중국의 GDP규모는 2010년에 일본을 능가, 미국에 이어 제 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. 중국과 경제적인 상호의존을 심화시켜왔던 일본은 중국경제의 감속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일본경제신문은 전하고 있음

□ 희토류의 중국의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자석 개발

- 토요타자동차와 미쓰비시 전기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에너지절약형 모터용으로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자석 개발에 착수.
 - 이달중으로 기술연구조합을 발족, 2021년도 실용화를 목표. 희토류 등 희귀금속을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, 차세대제품에 필요한 강력자석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게 된다고 10일자 일본경제신문이 보도
 -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에어컨용 고성능모터에 사용되는 자석은 주원료인 철에 자력을 높이는 네오지움과 내열성을 높이는 지스프로시움을 혼합. 희토류 전체의 중국의존도는 50%정도까지 저하되었으나 지스프로시움은 90%이상으로 높음.
- 이제까지 일본기업들은 중국의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희토류 사용량의 절감이나 조달처의 다변화, 나아가 여타 희토류로의 대체 등의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, 이번에는 전혀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은 강력자석 개발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음.
 - 새로운 자석개발에는 다이킨공업, 덴소, 아이치제강, NEC토킨 등 11개사단체가 참여, 10월중 「고효율모터용자성재료기술연구조합」을 발족.
 - 경제산업성은 개발비 보조나 세제상우대 등으로 조합을 지원. 희토류에 대체되는 금속을 철에 혼합하여 새로운 자석을 제조
- 일본정부는 희토류를 포함한 희귀금속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일본기업이 가진 해외광산 권익과 국내에서의 리사이클분을 합친 자급율을 2030년 까지 50%로 높일 계획임.
 - 희토류중 네오지움이나 세리움 등 경희토류는 수년후 50%에 달할 전망이나 지스프로시움 등 중희토류는 10%도 되지않아 중국의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큰 과제로 되고 있음.
- 경제산업성은 해저광물 채굴계획 전망을 2018년도까지 수립. 민간기업에 의한 상업화를 전제로, 상사나 광산회사가 채굴에 참여하기 쉽도록 자원기구도 출자하여 민·관 공동으로 공동사업체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

3 일본기업의 협력동향

일본기업	발표일자	업종	대상국가/기업	사업형태/내용
일본흥아 손해보험	2012.10.7	보험	마르탄엔브랄	직접투자/기업매수, 매수가 10 억엔정도
미쓰비시 동경UFJ은행	2012.10.7	금융	브라질/상파울로 주정부 투자국	업무제휴/일본기업의 진출 지 원 및 투자 촉진
보험클리닉	2012.10.7	보험	한국	직접투자/한국기업과 공동사 업, 최초의 내점형점포 해외 진출
나가와	2012.10.7	건축	태국	자본제휴/일본계 태국기업과 합작투자, 출자비율 40%
페밀리마트	2012.10.10	유통	인도네시아	자본제휴/현지기업과 합작으 로 금년중 1호점 개설
JFE	2012.10.10	철강	인도/JSW스틸	직접투자/추가출자, 15%의 출자비율 유지
유니프레스	2012.10.10	자동차부품	멕시코	직접투자/트랜스미션공장 설 립, 투자규모 53억엔
스미토모상사	2012.10.10	철도개수	인도네시아	수주/미쓰비시중공업과 간선 철도의 전화·개수사업 공동수 주, 수주규모 약 210억엔
NTT데이터	2012.10.11	IT	영국/RMA컨설팅	직접투자/기업매수, 매수가 10 억엔
IHI	2012.10.11	부품수리	미국/ICR	자본제휴/합작기업 설립, 출자 비율 60%
히타치	2012.10.11	철도사업	영국	직접투자/연구개발 거점 설립
마키타	2012.10.12	공구	루마니아	직접투자/생산능력증강투자, 투자규모 약 38억엔
국제협력은행	2012.10.12	금융	브라질/베트로 브라스	융자/미쓰비시동경UFJ은행과 공동으로 브라질 최대 국영서 유기업인 베트로브라스의 투 자사업에 장기융자로 지원, 공동융자규모 10억달러
미쓰비시 동경UFJ은행	2012.10.12	금융	터키/이슈뱅크	업무제휴/리테일 업무의 중계

* 자료: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

4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(1) 『세계와 일본의 FTA일람』 JETRO, 10월6일

*출처:http://www.jetro.go.jp/jfile/report/07001093/fta_ichiran_2012.pdf

(2) 『한국의 FTA전략 : FTA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요인과 일본에의 시사』
미즈호종합연구소, 10월6일

*출처:<http://www.mizuho-ri.co.jp/publication/research/pdf/argument/mron1210-2.pdf>

(3) 『아태지역의 지역경제통합과 일본의 전략』 미즈호종합연구소, 10월6일

*출처:<http://www.mizuho-ri.co.jp/publication/research/pdf/argument/mron1210-1.pdf>

(4) 『일중대립과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』 닛세이기초연구소, 10월11일

*출처:<http://www.nli-research.co.jp/report/letter/2012/letter121010.pdf>